

■ 2023년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23년 3월 2일(목요일) 14:00~15:00
- 심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문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도서관이 문학을 주제로 시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이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다. 문인과 도서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주민들이 지역에서도 쉽게 문학 프로그램을 접하며 문화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이 사업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상주작가로 참여하려는 문인들의 관심도 더 많아져 앞으로 이 사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도서관이 증가해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5개, 비수도권 57개 총 92개 도서관이 신청했다. 1차 행정 심의 결과, 7개 도서관이 필수서류를 미제출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 탈락시켰다.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심의위원들은 도서관의 특성화 시설 및 수준, 제안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실현성,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 성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정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공간이 여유로운 지역 거점 도서관의 경우 문인에게 독립된 집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다. 독립 공간이 없이 직원들과 같은 공간을 쓰면 문인이 도서관 업무를 보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제안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자세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되는 특색이 있는지, 시민들의 문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사업 담당자의 열정, 의지가 느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기대가 크고, 특히 오디오북 제작,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도서관도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예산이 많고, 인력이 풍부한 거점 공공도서관과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같은 기준으로 심의해도 되는지 논의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지역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작은도서관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점수가 같은 경우, 제안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사업 진행 역량이 있는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 도서관, 참여 횟수가 적은 도서관에 기회를 주기로 합의해서 총 36개 도서관을 최종 선정했다.

심의를 마치고, 사업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문인의 창작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많은 문인이 상주작가로 참여해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참여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3회 이상 사업을 진행한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최측에 건의하였다.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문학의 가치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도서관과 담당자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정된 도서관들은 참여 문인과 협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도서관, 문인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신 모든 신청 도서관에 감사함을 전한다.

2023년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